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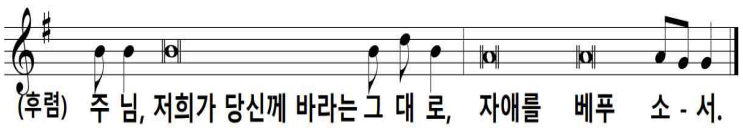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6,1-7

화답송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u>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u>〈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베드로 2,4-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 요한 14,1-12

성가 **입당성가** 1 **예물준비** 221
영 성 체 142 **파견성가** 479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춘원 베드로	린다 김
손요셉	김영빈 루시아
이크리스티나	김영빈 루시아
권경숙 미카엘라	박지은 카타리나
김학순	도미니카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엘리사벳
김철영 미카엘	가족
박현진 스테파노	배인순 아가다
심정흠 로사	이수창 베드로

생미사	봉헌
권미카엘라, 박바오로, 남크리스티나, 서희데레사	김효주 수녀
권엘라 미카엘라 견진	김영숙 카타리나
서희데레사 견진	박크리샤
서희데레사 생일, 견진	한안나
김정호 마리소피아 세례축하	박크리샤
박충호 영육건강	도미니카
김지원 돔나, 김홍섭 루크	가족
서정우 세실리아	김윤수미리암,이승재프란치스코
신명풍물패	허 로사리아
강혜순 소피아	성모회
강혜순 소피아건강	김효진 율리아나
송철용	송준호 바오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견진 축하드립니다.

권앨라 미카엘라 남지혜 크리스티나
박성환 바오로 정서희 데레사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바자회 도네이션 총모금 금액 : $3,580

윤은수, 안선정, 유희순, 최미양, 배옥희, 익명(6명), 윤요한, 김성진, 조남록, 진홍섭, 손명근/고은경, 강혜숙, 주세정

▶제79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marriage encounter

"부부 두분만의 힐링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27(토)7pm~29(월)5pm, 2박3일,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신청: 장크리스티나646-322-3484, 장스테파노646-322-2139

▶5월 성모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5월 한달동안 주일 미사전 8시 50분 부터 모든 신자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꾸리아에서 주재하는 이 기도에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5/7(일)	구세주의 모후 Pr.
5/14(일)	우리즐거움의 원천 Pr.
5/21(일)	희망의 모후 Pr.
5/28(일)	은총의 샘 꾸리아 Cu.
5/26(금)	전신자 성모의밤 *저녁 8시

▶나눔의 바자회 물품 기부

새옷 또는 새 물품으로 부탁드립니다. 5/20일까지 수녀님 사무실로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Tel:714-328-0386 카톡: Jcy258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1학기) 일정

구약	매주일 1시	다미아노홀	김효주 수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기도	성찬 봉사	복사
5/7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최예준사도요한 이유채아멜리아
5/14	이지훈 아녜스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한서희데레사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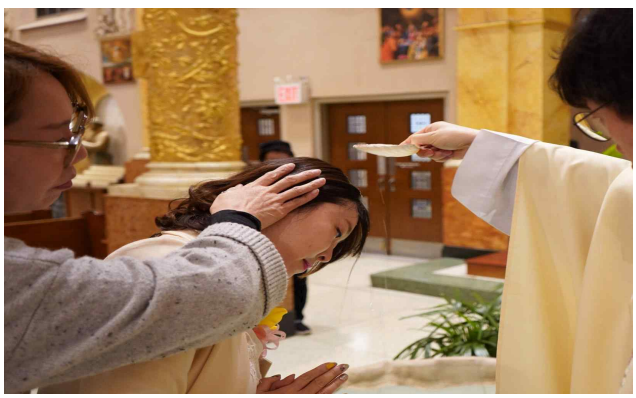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은총의 샘인 세례성사' 2023년 4월 30일

노영일 크리스토퍼: 갑자기 스스로 성당을 찾아오게 된 기적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며, 크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며 세례를 받을수 있었던 건 곁에서 이끌어주신 교리 봉사자들과 주변의 기도 덕분이었다. 첫영성체후 바친 기도 "하느님, 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곽세나 루치아: 교리시작 첫날,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였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족같아졌다. 처음온 사람중에 20프로 정도만 세례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리반은 거의 100프로가 세례받았다. 세례식날 첫영성체를 모시고 뭐라 형언할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대모님이 세례중 얹으신 손은 꼭 하느님께서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축복받은 새로운 삶' 4월 30일 세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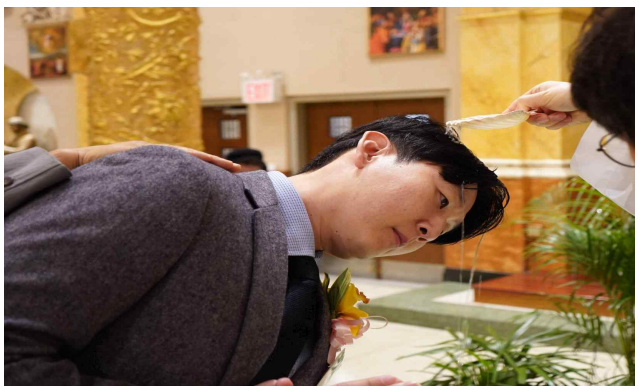
박형규 가브리엘: 성당에 나오고 싶었으나 결정못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교리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과정을 하나씩 밟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명을 받고 신자로 산다는 것, 뭉클하다. 이렇게 인생의 스탭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구나. 감사하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위해 베푼 교리 봉사자들의 정성은 결국 하느님한테서 오는 거구나. 하느님이 우리를 따뜻이 생각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성들여 살고 싶다.

이혜선 카타리나: 첫영성체를 모신후 자리로 돌아와 부모님, 예비신자 교리반 분들 위해 기도드렸다. 가족같은 예비신자 교리반 분위기. 6개월 동안 정성껏 이끌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한다.

김정호 마리 소피아: 예비신자반에서 좋은분들과 함께 세례를 준비하고 받게 되어 감사하다. 세례식 때 대모님 손은 따뜻했고 힘이 되었다.

이태주 레오: 벌써 예비신자 교리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고, 오늘 나는 세례성사로 두 번째 이름이 생겼다. 세례식 전 9일 기도를 바치며, 신자로서의 책임감이 들었다.

방상우 알렉시오: 예비신자 교리를 참석하며,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느님을 섬기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싶다. 가족같은 교리반 분위기에 감사하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아버지!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 교육분과장 이지훈 아녜스, 김규헌 프란치스코, 김효주 수녀, 김가롤로 신부 올림